



근친상간

鄭 東 哲

「달래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이러한 전설이 있도록 인간마음속에 흐르는 근친상간적 욕구가 너무나 분명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뿐이다.

「오누이가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뇌성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졌다. 누이는 겁에 질려 성큼 오빠를 앞장서서 걸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가 마칩 여름인지라 옷이 흠뻑 젖으니 누이는 그만 발가숭이가 되고 말았다. 오빠는 앞서가는 누이로 하여금 뒤를 따르도록 타일렀다. 보면 볼수록 정육이 솟구치므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문을 알턱이 없던 누이는 무서워 구지 앞서가길 양보하지 않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뒤돌아본 누이는 깜짝 놀랐다. 오빠가 없는 것이다. 황급히 되돌아서니 거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오빠는 죽어버린 것이다. 끊어오르는 정육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남근을 돌르 쳐서 자살하고 말았다. 누이는 슬피울며 이렇게 말했다.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

달래山은 강원도 철원에 있다.

이런 소재의 전설은 강원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안북도 정주와 충주에 「달래江」이 있고 경주지방과 마산지방에는 「달래나보지」고개가 또한 있다. 한 곳도 아니고 어찌해서 도처에 이렇듯 같은 뜻의 지명이 많이 있는 것일까?

근친상간적 욕구가 인간의 마음 깊숙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상생활에서 억압된 갈등과 불만이 꿈에서 상징적으로 발산되어 탄축되듯, 한 민족은 「달래山」 전설 같은 것을 즐겨 이야기하므로서 무의식의 깔려있는 근친상간적 욕구



를 만족시켜온 흔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한 개인에게 표면화될 때 그것은 대상전도라는 이른바 성도착증이 되고 만다.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되기엔 너무 피가 같은 오누이, 父女, 母子간의 성교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찍이 그 가능성을 동성동본의 결혼금지로 예방한 우리의 근상은 그런 점에선 딱 영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근친상간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것은 드문것 같다.

른 어떤 성문제보다 가족의 수치와 죄책감으로 표면화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점은 그중 형제간의 상간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우리의 가정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응용될 수 있어서 적지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 자녀교육과 그들의 건강한 정신발달을 위해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침대탈 것이 없는 우리의 주거방식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한 방에서 두리몽실 이로 그것도 한 이불아래 잠자는 것이 예사로 되어있어 미처 성이 인간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야릇한 작난을 쉬 이루곤 하는 것이다.

부녀간의 상간은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 모자간은 그중 드문일이라고 보고 되어 있으나 실상 짐작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 아닐가 추측하고 있다. 다른 어떤 상간관계보다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금기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점이 이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청상과부가 아들의 성장에 인생을 걸었을 때, 그 아들이 청년이 되면 절쾌에 이런 것이 나온다.

「아들과 같이 살면 자식이 단명하리라」 부득이 집을 따로 쓰는 까닭속에 숨어있는 뜻은 모자상간의 금기과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근친상간을 자행하는 어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지저분한 집안 환경과 매사 성에 집착하며 주정뱅이이다. 직업도 없이 무위도식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아이들에게 왕노릇을 하는 그런 형상의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다. 한편 어른을 택하는 어린가해자는 이상하게도 도덕적이고 보수적이며 종교적으로 독실한데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전통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마도 순종적인 뒷면에 본능적 욕구가 지나치게 억압되어 있었다는 까닭이 아닌가 여겨진다.

인류학적 연구자료에서 근친상간이 금기로 되어 있지 않은 뜻은 꽤 많다. 그들은 괴이하게도 신경증(노이로제)에 시달림이 없는데 우리의 정신병과 노이로제엔 근친상간적 욕구가 꿈틀거리 난처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무슨 운명의 조화인지. 그것은 필경 계율과괴에 따른 죄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경희의대 외래교수 정신과 전문의·의박〉